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가 우리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렇게 심각한 갈등의 원인 혹은 중심에서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종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현대 사회는 또 어떤 비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종교가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비판을 아주 전면적으로 받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이 시간에 이제

주요하게 다뤄볼 얘기들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종교가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와 종교 바깥에 세속적 세계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종교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3가지 차원에서의 갈등들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런 경험들이 현대 사회에서,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질문 혹은 공격을 받고

비판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 종교가 이런 갈등들의 중심에서 서게 된 데에는 단순히 현대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특히나 종교가 주는 굉장히 강력한 위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가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 예컨대, 왜 살고,

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삶의 궁극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이 해답 체계를 받아들이는

종교의 신도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 세계관이 대단히 큰 강력한 삶의 위안을 줍니다. 일종의 절대적 세계관으로써

자기 삶의 절대적인 의미 체계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는 단순히 이 세계관에

입각한 삶의 의미 체계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 정서적 안정감을 포함해서 종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해있을 때 갖는 소속감 그리고 이제 이 신도들과 맺게 되는 정서적 교류와 같은 대단히 여러 차원의 위안들을 아주

강력하게 종교 신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종교 신도들에게 주는 이런 위안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대단히 위험한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안이 크면 클수록 이 위안 체계들이 서로

맞부딪혔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절대적 세계관이 또 다른 절대적 세계관과 만날 때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위안 체계가 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또 다른 절대적인 세계관과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자족적인 방식으로 자기 종교에서 위안을 받는 일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절대적 세계관과

만나고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 세계관이 아닌 종교적 세계관의 가치를 부인하는 세속적 세계관과 마주했을 때 이 갈등들이

사뭇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세속적 세계관의 변화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민주주의적 세계관, 민주주의적 가치의 확산 즉, 남녀가 평등하다든지 각 민족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관념 체계는 이 종교적인 세계관이 근대 부족주의적 세계관 혹은 우리 종교가 훌륭하거나 우리 종교적 세계관을

믿는 그 신도들에게만 예컨대, 구원이라든지 삶의 궁극적인 의문이 해결되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시스템이

이 종교적 절대적인 세계관들이 마주칠 때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존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 갈등의 양상들이 즉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이라든지 혹은 이제 민족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가 절대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 세계관이 이 갈등의 현장, 갈등의

동기라든지 갈등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차용이 되거나 활용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갈등들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문명권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갈등도 애초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쪽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이 다시 건국을, 영국의 도움을

통해서 건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건국하게 되면서 빚어진 정치적 갈등이 이 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더욱더 증폭이

되니까 이게 마치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간의 충돌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 세계관이 절대적 의미 체계를 부여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처럼 한편으로 굉장히

강력한 위안도 주지만 그 강력한 위안에 준해서 기존에 있는 갈등들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절대적 세계관

자체의 충돌이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갈등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볼 때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 종교적 세계관 혹은 종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등장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종교적 세계관 혹은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서구 지성사를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칼 마르크스, 유물론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정초한

칼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소위 상부

이데올로기, 상부 구조의 하나로써 경제적인 구조, 억압과

착취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동체의 계급 갈등이라든지 계층

갈등을 종교적 내러티브로 정당화시키고 온존시켜주는 어쨌든
일종의 지적 시스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전에 크세노
파네스와 더불어서 포이에르 바하. 소위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외부에 뭔가 이상적인 존재로 투사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신 관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신 관념이고 그 신 관념에 기초해서 종교라는 게

형성됐다라고 하는 비판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서구 지성사의
종교 비판인 거죠. 그다음에 또 더 가까이 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결국 인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이 죄의식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 자체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의 개념 같은 것들이
여전히 포이에르 바하처럼 바깥에 투사돼서 이 투사된 것

자체를 소외된 신의 형태로 신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판들. 그다음에 이제 콩트 같은 사람들은

오귀스트 콩트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점점 합리적인
인간으로 변해갈수록 이 종교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신앙

체계라든지 미신의 체계를 버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또 세속화를 얘기하면서

막스베버 얘기했습니다마는 막스베버 역시 인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리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강화되는 방식으로

인류의 진화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가 혹은 종교적
세계관이 그 힘을 잃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결국 이 종교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예전과 같은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종교가 종교끼리, 그리고
종교가 세속적 세계관, 그다음에 종교가 종교 내부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의 모습들이 현대에 들어서
이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종교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종교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올바른 공동체의
더 나은 상태를 공동적으로 주장하는 종교들이 오히려 그런

평화라든지 공존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구현시키는
거보다는 더 심한 갈등들을 증폭시키고 만들어내는 현상

자체를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던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만약 종교가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강력한

위안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가 주는 위안을 인간 문화의 다른 영역이나 분야가 대체할 수 없다고 보면 도대체 우리가 오랜

속담처럼 목욕물을 버리되 아이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강력한 위안과 가치를 자칫

종교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깡그리 종교를 부인하게 되는 부작용도 갖지 않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물음들을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종교가 단순히 절대적인 세계관들끼리 만나서 혹은 현대 사회의 변하는 흐름 속에서 갈등의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종교 자체가 주는 강력한 위안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어떤 식으로 종교의 순기능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더욱더 통합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종교의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보다 진지하고 근본적인 물음이 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질문들에 연결시켜서 이 종교 간의 충돌 혹은 종교 간의 갈등들 그리고 종교의 순기능을

통합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덧붙이게 되는 방식으로써 어떤 방법들, 방안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다음

시간에는 심층종교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위 인간의 종교 생활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고 달리

표현하자 그러면 표층적 차원에서 심층적 차원으로 깊어질 수 있고 그 심층적 차원으로 깊어진다는 것 자체가 종교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종교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매개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점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